

합참 “美, 체니 방문 사전 통보 안했다”

전략적 판단 따른 듯...“한·미 정보공유 체계 이상 없어” 故 윤병장에 1계급·무공훈장 추서...美도 ‘동성훈장’ 검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자살폭탄테러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덕 체니 부통령의 기지 방문 계획을 우리 군당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폭탄테러로 사망한 고(故) 윤장호(27) 병장에 대해 전사(戰死) 처리하고 1계급 및 무공훈장 추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윤 병장에게 동성훈장을 추서하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했다.

박정희 합참 작전부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체니 부통령의 방문 계획은 다른 동맹국에도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한·미 정보공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정치적,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전파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미국측은 적극 협조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러 우리한테만 알려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바그람 기지 내 경계강화 및 주둔지 방호(경계)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체니 부통령의 방문이 쿠비리에 이휘졌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체니 부통령을 겨냥해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한 만큼 체니 부통령의 방문 계획이 사전에 바그람 기지 내 동맹군에 전파했다면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앞으로 현지 정보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체제를 유지하고 자체 경계를 강화해 고인의 값진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병장 사망사실을 사건발생 후 5시간 가량 늦게 발표한 것과 관련, 박 소장은 “미군이 현장 출입을 봉쇄, 윤 병장의 사망 확인이 안돼서 늦어졌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합참은 이와 함께 “윤 병장은 월남전 파병 이후 해외파병 장병 가운데 처음으로 적대세력에 의해 순직한 경우”라며 “윤 병장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뜻에서 전사 처리와 1계급 추서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무공훈장 추서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병장의 전사가 인정되면 유족들에게는 2억3천여만원의 사망보상금과 월 89만5천 원의 보훈연금도 지급된다.

사고 직후 아프간 바그람 기지 내 미군병원에 안치됐던 윤 병장의 유해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 10시15분께 미국 수송기(C-17)를 통해 쿠웨이트 무바라크 공항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유족 대표와 유해인수단(단장 류홍규 합참 인사부장)은 쿠웨이트 무바라크 공항에서 윤 병장의 유해를 인수받은 뒤 2일 오전 6~7시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윤 병장의 유해는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될 예정이며 합참은 윤 병장의 원 소속부대인 특전사부대장(將)으로 장례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광주 특전교육단에서 열린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 6진 1차 교대병력 환송식에서 한 파병 장병이 어머니에게 큰절로 파병 신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아프간 파병 부대 철군 논란

“즉각 철수해야” VS “유엔 차원...신중해야”

윤장호 병장의 폭탄테러 희생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내에서 파병 반대 주장을 펴온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 철군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윤 병장의 폭탄테러 희생사건과 관련, “군 당국과 협의해 이제 철군계획을 작성할 시점”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 군대와 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자이툰 부대를 당장 철수하고 레바논 파병 계획도 철회하라”며 윤장호 병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외파병 군대의 전면적인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무소속 임종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다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면 윤 병장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우리 군을 즉각 철수해야 하며 레바논 파병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반대를 주도했던 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윤 병장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유엔 차원의 활동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라크전은 미국이 유엔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벌



인 전쟁이지만 아프간 파병은 유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당 최재성 대변인도 “파병 문제는 국제관계를 신중하게 고민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과 시각

은행장 인선 정부 입김 없어야



장필수
경제부 차장

요즘 금융계의 최대 관심사는 임기 만료를 앞둔 광주은행 등 최고경영자(CEO) 인선이다.

CEO 인선작업이 진행 중인 자리는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우리은행장, 광주은행장, 기업은행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다. 가운데 단연 관심을 끄는 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을 비롯한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관련 CEO 선입이다.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광주은행장을 포함한 산하 3개 은행장 인선작업은 이미 막이 올랐다. 우리금융그룹 회장에는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3개 은행장은 각 은행마다 행정후보추천위원회(이하 행추위)에서 2~3명의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한 상태다. 광주은행 행추위도 지난달 23일 모임을 갖고 정태서 현 은행장을 포함해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우리금융그룹 CEO는 앞으로 3주 가량 정부의 인선 절차를 거쳐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각 은행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된다. 광주은행장 선임절차가 우리금융그룹 CEO 선임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은 광주은행이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돼 있기 때문이다.

3개 은행 모두 공적자금이 투입돼 우리금융그룹에 한해 묶어다보니 CEO들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면서 똑같은 선임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다보니 CEO 인선작업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들 은행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재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고 재정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재임기간내 최대 실적을 기록한 황영기 현 행장이 탈락한 것도 이런 역학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외적으로는 공모를 통해 CEO를 선임하고 있다지만 선발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다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광주은행장 인선작업은 다음주 말이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차기 광주은행장은 임기 3년동안 광주은행의 민영화 추진은 물론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라 더욱 치열해지는 금융기관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나아가 지방은행으로서 지역기업과 가계들의 건전한 자금창구 역할도 해야 한다.

지역민들은 혹시나 정부가 부처간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정부가 후보들의 경영실적 등을 바탕으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를 선임하길 기대하고 있다.

/bungy@kwangju.co.kr

‘제암리 학살 은폐’ 일본군 사령관 일기 발견

양민학살을 저항에 대한 대응으로 조작 독립운동 진압실태·운동가 회유 기록돼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일본군 헌병들이 죄없는 제암리 주민 23명을 집단 학살한 만행을 조선군사령부가 철저히 조작, 은폐했음을 입증하는 사령관의 일기가 발견돼 중요한 사료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일기의 주인공은 3·1운동 당시 조선군사령관이었던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太郎·1861~1922) 대장으로, 이번 발견된 15년분의 일기 등 사료에 독립운동 진압 실태와 민족운동가에 대한 회유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독립운동이 전국으로 번져 일본군 등이 진압에 나선 가운데 1919년 4월15일 발생한 제암리 학살 만행 사건에 관해, 그의 일기는 일본군이 약 30명의 주민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학살, 방화했으면서도 발표를 통해 이를 부인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의 4월 18일자 일기는 “사실을 사실대로 하고 처벌을 하면 간단하겠지만 학살, 방화를 자인하는 것이 왜 제국의 입장에 심대한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저항을 해 살육한 것으로 꾸며 학살 방화 등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밤 12시 회의를 끝냈다”고 적었다.

또 다음날 일기에서는 학살사건에 관여한 일본군 중위에 대해 “진압 방법에 적당하지 않은 점이 있어 30일간의 중(重)근신 처분을 내리기로 결심했다”고 기록했다. 실제 해당 중위에 대해서는 30일간의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고 아사히는 밝혔다.

우쓰노미야 사령관은 당초 독립운동에 대해 종래의 ‘무단통치’를 비판하며 조선인들의 ‘원망과 한탄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일기에서 지적했다.

이후에는 ‘문화정치’의 도입에 앞서 다양한 회유공작을 펼쳤으며, 조선인 민족운동가 및 종교지도자 등과 만나 정보수집과 의견 교환 등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도쿄=연합뉴스

중국어 3개월이면 된다!!

3월 5일 개강

지금 중국어 배우는 것도 수월하세요? 중국어 배우세요

- ▶ 1. 중국어 기초 문법
- ▶ 2. 중국어 회화 실용
- ▶ 3. 중국어 발음 교정
- ▶ 4. 중국어 문법 교정
- ▶ 5. 중국어 회화 실용
- ▶ 6. 중국어 회화 실용

중국학 사관학교 리틀자이니 中国語学院

02-233-9562

CANADA, SOUTHBAY COLLEGE OF TCM

한의대 입학생 모집!

한의학 전문 대학 입학생 모집

고교수입생, 대학생 직강인 입학대 환영

문의: 입학지원팀 062-222-8250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www.southbay.co.kr 0606-312-1111